

‘장소를 촉매로 한’ 치유의 글쓰기와 지리교육적 함의 - ‘나를 키운 장소’를 주제로 한 적용 사례 -

한희경*

Implications of the Writing to Heal ‘Mediated by Places as Catalyst’ for Geographical Education

Hee-Kyong Han*

요약 : 치유의 글쓰기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면의 깊은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이다. 최근 학술적 영역에서 치유의 기제로 장소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연구는 장소와 기억의 호혜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치유의 촉매로서 장소가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 장소를 촉매로 한 치유의 글쓰기의 실제 사례들을 해석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나를 키운 장소’ 라는 글쓰기 주제를 추출하였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글 자료들에 나타난 다양한 치유적 양태들을 해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치유의 글쓰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 사람들마다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강한 영향으로 ‘기억되고 있는’ 내면의 깊은 감정에는 언제나 그/그녀의 ‘장소’가 함께 한다는 사실과 그러한 장소가 글쓰기 과정에서 치유의 촉매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치유의 글쓰기, 치유의 촉매로서의 장소, 장소와 기억의 호혜성, 기억의 장소들, ‘나를 키운 장소’

Abstract : Writing to heal is a writing that the self chews over his/her life and expresses what he/she is. Recently, many scholars who concern with writing to heal show interests in place as a medium to heal. From this point of time, this study aims to interpret implications of the writing to heal mediated by places as catalyst on the bases of theories that have argued the reciprocity between memory[the self] and place. Previously, the author has drawn ‘The places that have shaped his/her life’, the theme to write, and secondly interpret various situations and aspects of writings that students put down. As a result, the author places emphasis on that most students have a variety of memorial places respectively and those places work as catalyst in the process of writing.

Key Words : Writing to heal, places as catalyst for healing, the reciprocity between memory[the self] and place, memorial places, ‘The places that have shaped his/her life’

1. 서론

누구나 어린 시절에 그랬듯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운동장에서 여기 저기 낙서를 한다. 이것

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종의 글쓰기를 통한 감정의 표현이고 스트레스의 해소과정이며 그래서 그것은 치유의 글쓰기에 속한다. 글쓰기가 갖는 치유적 기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경험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보다 많은 학자들이 좀 더 학술

* 대덕고등학교 교사(Teacher, Daedeok High School), hanlan21@hanmail.net

적인 영역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치유의 글쓰기’라는 프로그램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한다. 글쓰기의 목표 중 하나는 자신의 내면과 직접 대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다. 따라서 모든 글쓰기의 핵심 문제는 곧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본래성을 회복시키는, 즉 치유의 글쓰기이다(한성우, 2012).

영어권의 경우 이 분야의 대표적 선구자로는 Pennebaker를 들 수 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 텍사스 주립 대학에서 ‘치유의 글쓰기(Writing to Heal)’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자들로 하여금 총 4일 동안 하루에 15~20분씩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강한 영향으로 남아 있는 내면의 깊은 감정을 글로 표현해 보도록 주문하였다. 그 결과로서 그는 ‘자신의 그러한 감정 상태를 글로 표현해 본 사람들은 활력과 건강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www.utexas.edu/feature/2005/writing/). 또한 ‘치유의 글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행복감을 경험하고 이전보다 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우울증이나 강박증도 크게 완화된다. 이러한 정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치유의 글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신체적 면역 기능의 변화까지 함께 나타난다.’고 그는 강조한다.

Pennebaker가 치유의 글쓰기를 위한 지침으로 제시한 바, 사람들마다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강한 영향으로 ‘기억되고 있는’ 내면의 깊은 감정에는 언제나 그/그녀의 ‘장소’가 함께 한다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일찍이 Bachelard는 인간의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장소라고 말했다(곽광수 옮김, 2003, 84).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장소 철학자 Casey 역시 ‘장소는 과거에 생명을 불어 넣어 현재에 존속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억을 재생산하는 데에 공헌한다’고 이야기한다(Casey, 1987, 186-187). 우리의 모든 기억은 장소-지향적이며 또한 장소-기반적인 성향이 있다(전종한, 2013, 439).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교과교육이 갖고 있는 딜레마 중 하나는 ‘교육학의 복제라는 비판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 교육학의 체재를 본 따서 만든, 지리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 지리교육의 일반적 구조 역

시 그러한 비판에 노출되어 있다. 본고의 주제인 ‘장소를 축대로 한 치유의 글쓰기’는 한편으로는 지리교육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장소의 교육적 가치를 핵심 주제로 부각시키면서도 경직된 전통적 교과 틀을 벗어나 인접 교과와 소통하고 융합하는 이전과 다른 패러다임의 지리교육을 제안한다. 이것은 정규 교과 시간만이 아니라 비정규 시간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지리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환이기도 하다. 동시에 교실이나 학교가 아닌 다른 일상적 공간에서도 구현 가능한 지리교육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소를 축대로 한 치유의 글쓰기가 지리교육에서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고찰해 보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두 줄기의 논의, 즉 치유의 글쓰기와 장소-기억의 호혜적 관계를 이론적 배경으로 검토하면서, 이들의 결합을 통해 ‘장소를 축대로 한 치유의 글쓰기’를 구체화하여 ‘나를 키운 장소’라는 주제를 도출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거기에 나타난 다양한 장소들을 해석해 봄으로써 장소를 축대로 한 치유의 글쓰기가 갖는 교육적 가능성과 의미, 과제를 지리교육의 입장에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치유의 글쓰기와 장소-기억의 호혜적 관계

1) 치유의 글쓰기의 교육적 의미

최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의 일환으로 기존의 글쓰기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그동안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가 ‘지배 담론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비판적 접근법’이나 ‘독자의 상황을 충족시키는 수사적 접근법’에 비해, ‘글쓰기를 통해 개인의 심미적, 인지적, 윤리적 성장을 지향하는 표현주의적 접근법’이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는 주장이다

(이재승, 2008, 186). 이러한 관점은 '일선의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지주의적 접근법에 기반한 문제해결전략 중심의 글쓰기가 학생들이 글을 왜 쓰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주어진 상황 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집착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적 안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정희모·이재승, 2005).

학교에서 실행하는 글쓰기가 논증과 설명, 탐구와 절차에 관한 글을 써내려가는 것만을 강조한다면, 글이라는 것을 도대체 써보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글쓰기는 접근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이 점이 1970년대와 80년대에 글을 쓰는 처음 단계에서 표현주의적 글쓰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주의적 접근법에 의한 글쓰기는, '과정 중심의 글쓰기 교육'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글을 쓰는 단계에서 창작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에 방점을 두고 있는 글쓰기이다(이재승, 2010). 이 점을 감안할 때, 표현적 글쓰기의 형식일지라도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그것의 치유적 효과에 관심을 가지는 치유의 글쓰기는 창작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글쓰기와는 글을 쓰는 목적이 다르다.

치유의 글쓰기는 자신의 정서와 자신의 삶에서 얻어낸 다양한 경험이나 이미지를 글로 표현함으로써 글을 쓰는 과정이 나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어떤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이야기 즉, 서사(narrative)가 결말을 향해 진행되는 한, 그것은 시작과는 다른 지점에서 끝이 나게 마련이다. 시작과 끝이 다른 이야기를 써 가는 동안에 글쓴이는 처음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색다른 느낌이나 생각을 경험할 수 있다. 요컨대 치유의 글쓰기는 존재론적 글쓰기와 같은 것으로, 글을 쓰는 형식과 내용을 문제 삼기 보다는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글쓰기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글을 쓰는 동안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모호한 감정이나 사실들을 적절한 언어로 명료하게 표현하려 애를 쓰게 마련이다. 자신의 정서에 변화를 준 경험을 써내려가는 동안, 사람들은 글의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글을

쓰고 난 이후에 도 글의 주제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하는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글쓰기의 간섭이 개입된다(Lepore and Smyth, 2002; Pennebaker, 1997).

이처럼 감성적 사유의 세계를 글로 표현하는 글쓰기는 단일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즉각적인 인지적 변화에서부터 정서적, 사회적, 생물학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연구들은 글을 쓰고 난 이후에 숨을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다거나, 웃음이 더 많아졌다거나, 트라우마에 관한 생각들이 줄어든다거나, 심지어 관절염이나 천식이 호전되는 등과 같이 삶의 다층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Pennebaker and Graybeal, 2001; Foa, and Kozak, 1986; Smyth, Stone, Hurewitz, and Kaeli, 1999).

글쓰기의 치유 효과에 관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병원의 심리 치료 센터, 일반 상담 기관, 교양 강좌 센터, 대학의 글쓰기 교육 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치유의 글쓰기에 관한 전략들을 쏟아내고 있다. 예를 들면, 저널쓰기 기법, 인물 묘사 기법,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내 인생 행로의 중요한 행동이 있었던 시점을 더듬어가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징검다리 기법 이외에도 모티브 글쓰기, 환영적 글쓰기, 꿈 표현 글쓰기, 타인에게 글쓰기, 3인칭 글쓰기, 어휘를 통해 감정을 조정하기, 빈 의자와 대화하기 등 방법과 절차도 다양하다(강은주·이봉희 옮김, 2006). 치유 글쓰기의 형식과 그것을 적용하는 기관이 대중화된 만큼 글쓰기의 방법 또한 느슨하고 애매하기까지 한 전략들이 많다. 그 만큼 치유의 글쓰기는 특정한 매뉴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글쓰기의 치유 효과에 관한 연구는 대학의 글쓰기 교육 센터에서 자발적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큰 틀에서는 국어 교육 분야, 즉 문학 치료나 독서 치료, 글쓰기 치료 등의 분야에서 진행하는 편이었다(염은열, 2005; 김준희, 2010, 정기철, 2010). 문학 치료와 같은 글쓰기는 음악이나 미술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치료를 대신하여, 글쓰기라는 도구를 매개로, '억제하고 회피했던 감정에 대면함으로써 아픈 기억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김준희는 이와 같은

글쓰기의 치유 과정을 ‘기억의 활성화, 언어로 형상화, 사건의 객관화와 재구조화, 인식의 변화’와 같은 네 단계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최근 학교 현장의 교실에는 일상생활에서 무기력과 불안증을 보이는 학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이 정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이 늘고 있는 시기에,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쓰기의 치유적 효과를 검증하는 사례들이 국내외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서를 표현하고 그것의 치유적 의미를 해석하는 글쓰기를 교실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선 교실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감성적 사유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와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일반적인 진행 형식이나 산출 결과를 요구하는 현장의 교육 풍토에서 교사가 치유의 글쓰기와 같이 특정한 매뉴얼이 없는 글쓰기를 진행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는 글쓰기란 어떤 형식이든 특정한 교과 시간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글을 쓰는 행위는 우리에게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런 글쓰기로 학생들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글쓰기란 결코 특별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위한 영역이 아니며, 글을 쓰는 것이 색다른 의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전인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치유의 글쓰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글쓰기의 어떤 요소들이 치유를 동반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정서를 분출하는 글쓰기 실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결과를 대상으로 ‘치유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실험연구를 통해 분석해야 할 것이다.

2) 치유의 글쓰기에서 기억과 치유를 위한 매개로서 ‘장소’가 갖는 의미

‘치유의 글쓰기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이유로 치유의 결과를 생산해내는지 명확하지 않다’(Pennebaker, 2004, 138)는 논란 속에서, 최근 십년 간 의학, 간호, 심리 상담 치료 분야 등에서는 건강과 장소 간의 친밀한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Williams, 2002; Andrews, 2004; Carolan, Andrews, and Hodnett, 2006). 특히 사람과 장소의 건전한 관계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치유 경관과 같은 개념을 제시하고 이것을 심리를 감지하는 매개이자 적극적인 치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Gesler, 1993, 186). 이와 같은 연구들은 ‘사람이 살면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Kearns, 1993, 142),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의 합일을 지향하는 용기로서 장소가 건강한 정체성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Williams, 2002, 150). Eyles는 일련의 상황 기반적인 건강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데 장소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Eyles, 1995).

상처 받은 이들의 심리를 감지하는 매개이자 치료의 수단으로 ‘장소’를 활용한다는 것은 장소가 세상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기억하는 매개이자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장소와 기억의 호혜성에 관한 이야기는 Bachelard, Casey, Relph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던 바이다. 현상 학자들이 말하듯이 의식과 기억이 본질적으로 그 무엇에 대한 ‘지향성’을 지닌 것이라면, Relph는 ‘의식은 막연히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소에 대한 무엇’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Casey는 장소는 경험의 용기로서 강력한 내재적 기억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살아 있는 기억이라면 거의 동시에 장소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장소 안에서 기억의 생생한 흔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Cresswell, 2004, 20-21).

장소와 인간의 밀착 관계에 주목한 Tuan과 Relph와 같은 인간주의 지리학자는 단순한 위치로서의 장소 개념을 벗어던지고, 일찍이 인간에게 가치와 소속감을 제공하는 장소와 인간의 애착적 결합 관계를 강

조했다. Relph는 '처소로서의 장소' 개념을 통해, 인간이 장소를 경험하는 유형에는 내부성과 외부성이 있다고 하였다. '한 장소의 내부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장소에 속해 있고' '그 장소로 인한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내부성의 반대쪽 끝에는 존재론적 외부성이 위치한다. 존재론적 내부자가 느끼는 소속감과 같은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장소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상태를 뜻한다. Relph가 인간의 존재 형식을 구분하며 하이데거의 '처소(desein)' 개념을 발전시킨 진성성(참됨)의 개념은 '자기 존재에 대한 완전한 이해, 한 장소에 대한 진정한 태도를 가지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장소는 인간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

장소에 관한 심오한 사유의 세계에 천착한 Malpas와 Sack과 같은 일군의 학자들은 특정한 장소가 사회와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장소를 단순히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시각에서만 보지 않고 그 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간은 사과 상자 속의 사과의 처지와 다른 방식으로 장소와 관계하고 인간이 장소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구성해낼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이다(Cresswell, 2004, 31-32). 이런 식의 이해는 장소와 정체성의 논의에서 사회적 영역에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장소를 인간 존재에게 본질적이며 그 무엇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소는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이 다루는 '뿌리내림'과 '참됨'의 의미로서의 장소와 같이 내부 지향적인 장소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 의미와 사회적 관계의 토대를 이루는 '기반암으로서의 장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소는 우리 삶과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문화적 관계들에 의해 충전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장소를 바라보는 시각이 집단의 시각으로 확대될 때는 '경계 짓기'와 '배타성'의 성향이 더욱 드러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며 표현하는 말 속에는 '우리'는 이 장소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그들'이라는 말 속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잦은 이동이나 먼 이국땅으로의 이주로 인해 낯

선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낯선 장소로부터 자신의 존재가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흔히 혼란과 소외감을 느낀다. 대체로 이러한 배타성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실천이나 규약들에 의해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우리의 삶 속에는 장소를 둘러싼 투쟁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다. Arturo Escobar가 주장했듯이 '장소에는 각종 사물과 여러 사상들과 다양한 기억들이 서로 모여들어 결과적으로 특수한 형상을 빚어내는 곳'이다. 일상의 실천 속에서 사람들은 유기체로서 다른 유기체들과 함께 세계를 공유하는 존재이다. 이는 장소가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과 사건에 의해 구성될 수 있음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때의 장소의 의미는 자신의 정체성을 영속시키는 '경계'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서 일어나는 매일 매일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장소에 기반한 정체성에 '개방성과 변화'를 초래하는 유동적인 성격의 장소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장소는 정체성을 보증하는 선천적 라벨이 아니라, 정체성의 창조적 생산을 위한 원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장소는 치유를 위한 기억의 매개로서, 글쓴이가 '세상을 바라보고, 알아가고,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소가 기억의 매개이자 치유의 촉매가 될 수 있는가? 응은 매개 없는 치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기 기분을 모르던 사람이 '딱 깨진 수박'을 보고, 그 속의 빨간 속을 바라보고 자신의 분노를 자각했다면 수박은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게 만드는 매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외부적 형상, 즉 매개의 대상을 만들어 내는 것,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것, 그 자체가 치유 과정이며 치유의 글쓰기가 될 수 있다(조원규, 2011).

장소가 치유의 매개가 될 수 있음은 정신 분석 분야에서 장소 분석을 통해 논의되었다. 정신분석에서 치유 활동이란 무의식의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존재를 무의식에서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는 매개로 '장소 분석'이 시도된다. 장소 분석이란 일종의 장소와 경관에 대한 유대감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정신 분석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는 것은 장소에

호의 징후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애착과 그 속에 나타나는 뉘앙스들의 깊은 실체를 밝히는 과정’이 어떤 이가 삶의 공간에서 조용하는 무수한 모순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사는지, 그 속에서 존재를 보호하는 하나의 경계로서 장소를 어떻게 느끼고 체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참된 의미로 우리가 거주하는 모든 공간은 집이라는 관념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흔히 어느 공간에 머무르며, 그 공간 속에 온전히 속해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집처럼 편안하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집과 같이 내밀한 공간과 그를 둘러싼 외부의 공간을 두고, 우리는 안과 밖이라는 형용어를 붙인다. 안과 밖과 같은 형용어들은 사물들에 대한 우리들의 애착의 척도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 ‘안과 밖’에 붙어 있는 형용어들을 같은 방식으로 살(體驗) 수는 없다.

Bachelard는 여기서 집과 같은 내밀한 공간과 외부 세계의 공간이 반드시 서로 병치된 두 공간이 아니며, 시적 상상력의 영역에서 그 둘은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고, 서로를 생동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된다고 지적했다(곽광수 옮김, 2003, 341). 시적 상상력이란 우리가 특정한 공간이나 경관에 대한 우리들의 감성의 세계를 고착화시키지 않고, 그 곳에서 새로운 뉘앙스, 즉 시적 표현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힘을 말한다.

시인처럼 글쓰기를 하는 과정에서, Bachelard는 우리가 어느 한 공간에 가질 수 있는 감성이 어떤 것이든, 슬픈 것이든, 무거운 것이든, 어느 공간이 시적인 표현을 얻는 순간이 온다면, 그 순간 슬픔은 바래지고 무거움은 가벼워진다고 하였다(곽광수 옮김, 2003, 341-346). 균질적이고 동일화된 공간이 숙고와 성찰, 과거에 대한 추억과 그리고 그 공간의 역할 등을 상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뉘앙스, 시적 표현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공간이 내면화’되고 있다고 지칭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무한히 펼쳐진 외부 공간을 온전히 사적인 공간, 즉 장소로서 살(體驗)하게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기억과 의식이 본래 장소에 대한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치유의 글쓰기에서 장소는 자신의

내면의 기억을 글로 서사화하는 데 강력한 도구이자 매개가 될 수 있다. 장소는 또한 우리 삶에서 뿌리 내림, 배타성, 변화 등을 내포하는 심오한 세계를 함축하고 있기에, 일상의 삶 속에서 집과 같은 처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곳, 내가 속한 곳과 배제되고 있는 곳을 발견하는 장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흔들리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자신의 감정을 접촉할 수 있게 해준다.

3. 장소를 촉매로 한 치유의 글쓰기: 주제의 추출 및 프로그램의 적용

1) 치유의 글쓰기를 위한 주제의 추출: ‘나를 키운 장소’

장소를 촉매로 한 치유의 글쓰기를 현장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교사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글쓰기의 주제를 추출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한다. 막연히 ‘장소를 촉매로 한 치유의 글쓰기를 시작하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장소를 촉매로 한 글쓰기를 위한 주제들은 교사의 경험에 따라 학생의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여기서 연구자는 ‘나를 키운 장소’라는 주제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제를 떠올린 배경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글을 쓸 때는 글쓰기를 추동하는 기폭제(trigger)가 필요하다. 장소와 기억의 호혜성에 대한 논의를 볼 때, ‘장소’가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 매개가 되어 글쓰기 실행의 강력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소위 문제 집단의 학생들은 글쓰기가 교과 공부라는 생각을 버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글쓰기의 소재로 삼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이지현 옮김, 2011, 88). 이에 장소에 얽힌 자기 성장 이야기가 학습의 일환으로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것은 일차적으로 공업고등학교에 적용한 사례에서 주효했다.

셋째, '나를 키운 장소'라는 주제의 글쓰기에서, '키운'이라는 형용사는 깊은 치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학생들이 비록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자랐을지라도, 장소와 얽힌 자신이 성장하며 지금까지 느꼈던 기쁨, 행복, 슬픔, 분노 등을 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그 동안 응어리져 있던 자신의 감정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것은 A 공업 고등학교 학생들의 글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행복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 B 고등학교 학생들의 글 속에서도 똑 같이 발견되었다.

2)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과 방법

(1) 적용 대상

'나를 키운 장소' 글쓰기는 두 학교에서 실시하였다. 일차적으로 2010년 11월 말에 대전의 A 공업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2013년 3월 초에 대전의 B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3개 반의 112명과 2학년 남학생 3개 반의 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적용 방법

교실에서 정서를 분출하는 글쓰기를 진행할 때 진행자와 참여자 간의 래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글쓰기는 학생들과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진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자가 실제 적용한 '나를 키운 장소'에 관한 글쓰기는 그 실행 시기가 두 가지로 달랐다. A 공업 고등학교에서는 2010년 11월 말에, 두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한 상태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어느 정도 래포를 형성한 이후에 진행하였다. 그리고 올해부터 근무하게 된 B 고등학교에서는 2013년 3월 초에 실시하였다. 그것도 학생들과 대면한 첫 번째 시간(진로시간), 두 번째 시간(세계지리 시간), 그리고 개학하고 일주일 이 지난 두 번째 주의 월요일(담임 재량시간) 등, 물리적으로 학생들과 충분한 래포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B 고등학교 학생들의 글은 이전의 A 공업 고등학교 학

생들의 글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술한 것들이 많았다.

적용 시기와 상관없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나를 키운 장소'에 관한 글쓰기에서 '장소'라는 화두가 인간의 정서나 존재 방식에 깊이 있게 간여하는 개념이기 때문일 것이다. '장소'가 치유의 글쓰기에서 강력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요컨대, 이 프로그램은 대전의 A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1학년 사회교과 시간에 한 시간을 할애하여 실시하였다. B 고등학교는 2학년을 대상으로 세계지리 시간(남학생 3개 반), 진로시간(여학생 2개 반), 담임 재량시간(여학생 1개 반)에 각각 한 시간씩을 할애하여 실시하였다.

3) '나를 키운 장소'들에 나타난 치유의 양태들

표현적 글쓰기에 나타난 치유의 작동 기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글이 소재로 삼고 있는 대상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형식적 차원과 해석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형식적 차원은 글쓰기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에 '나를 키운 장소' 글쓰기에 학생들이 장소와 얽힌 생애 사건들을 어떤 형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지 분석해 보았다.

두 번째로, 해석적 차원은 학생들의 글 속에 나타나는 일종의 해석적 레퍼토리를 분석하는 것이다. 해석적 레퍼토리는 특정한 설명과 해석 패턴에 사용되는 설명 자원의 단위를 말한다. 즉 화자가 어떤 행위나 현상을 설명하고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벽돌'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화자가 반복적으로, 혹은 다수의 화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와 스타일, 용어들을 통해 구성된다(Wetherell, 1998). 이를 근거로 '나를 키운 장소' 글쓰기에 특정한 학생, 혹은 다수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장소들을 분석하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치유의 의미를 해석하려 하였다.

형식적 차원에서, '나를 키운 장소' 글쓰기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은 도입 단계에는 지금의 나에게 의미 있는 장소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시작되다 좀 더 몰

입하여 장소와 얽힌 자신의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글쓰기로 나아갔다. 이때 장소에 관한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글쓰기는 단지 과거의 사건을 자세히 묘사하고 회상하는 것보다는 그 때 느꼈던 느낌과 사건을 바라보는 현재의 느낌을 함께 쓰는 과정이 수반되었다. 글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갈등이나 슬픔을 딛고 새로운 자아를 세우기 위한 장소에 관한 시적 표현이나 새로운 화해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표현들이 많았다.

해석적 차원에서, 나를 키운 장소 글쓰기에 자주 등장하는 해석적 레퍼토리를 살펴보면, 우선 가족을 잃은 상실의 기억이나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갈등들에 관해서는 ‘집’이나 집 안의 다양한 공간, 즉 ‘책상 밑’, ‘벽장 속’, ‘침대 위’, ‘화장실’ 등과 같은 장소에 자신의 처지를 투사시켜 서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로는 이전과 다른 처지에 놓인 자신을 돌아보는 경우, 즉 자신에게 뚜렷한 상처를 남긴 사건들을 기술하는 경우에는 ‘골목’, ‘병원’, ‘약국’ 등과 같은 어떤 한 장소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적 강렬한 자신의 감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한편, 잦은 이사와 먼 이국담으로 이주를 겪은 학생들의 글은 주로 자기가 살던 ‘동네’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나 ‘낯선 학교’에서 겪은 문화적 충격들과 그 속에서 새롭게 자기를 알아가는 경험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학생들의 글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특정한 장소에 관하여 애착을 가지고 서술하기 보다는 장소에 얽힌 사회적 관계들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둘러싼 관계,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감정을 겪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장소에 얽힌 자신의 느낌 또한 양가적인 경우가 많았다. 장소에 대한 소속감의 부재로 인해 흔들리는 감정은 대체로 낯선 공간에서 느끼는 경험들이지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혼란스러울 경우에도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나를 키운 장소’에 관한 글 속에 나타난 다양한 치유의 양태들을 분석한 결과, 장소가 어떻게 치유의 근거로 작동하는지 찾을 수 있었다. 현재적 관점에서, ‘나를 키운 장소’에 얽힌 과거의 나를 다시 바라본다는 것은 장소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감정을 접촉

하고 자각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자신의 감정을 자각한 이후에 학생들은 자신과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장소에 얽힌 이미지에 투사시켜 일정한 거리에서 자신의 상(相)을 조망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화해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나아갔다. 결국 글을 쓴다고 아픈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서사화했을 때 이는 다룰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다음은 치유의 글쓰기에 관한 논의를 근거로, ‘나를 키운 장소’ 글쓰기에 비교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소와 그 장소에 얽힌 사건’에 내포된 치유의 의미를 다섯 가지 주제로 묶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본 것들이다.

(1) ‘집’이란 장소를 잃어버린, 상실의 기억들을 토해냄

집은 우리가 소속감, 내부에 있다는 느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기 장소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 공간이다(곽광수 옮김, 2003, 83-34). 보통 사람들은 집, 고향,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소속감을 제공하는 장소감은 개인의 정체성에 중요한 원천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2008, 150). Bachelard(2003)는 집은 ‘인간이 우주와 용감하게 맞서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라고 말한다. 집에는 공동의 애정, 공동의 힘, 용기와 저항의 응집이 있으며, 집은 인간이 완전히 별거벗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곽광수 옮김, 2003, 132-133). 동수와 찬혁이가 그런 집이라는 장소를 잃어버린 채, 상실의 기억들을 어떻게 풀어내는 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소해 가는지 들여다보자.

● 동수의 이야기(男, A 공고): ‘동수야,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나를 키운 장소는 엄마 배속, 병원, 집도 아니다. 바로 고아원에서 컸다. 엄마 곁에서 태어나 5학년 때까지 일반 가정에서 자랐으나 집이 가난해서 고아원으로 가야만했다. 엄마와 떨어지기는 싫었지만 4학년 때부터 엄마는 집을 나가서 일치감치

떨어져야 했다. 그래서 천양원이란 아동복지시설에 보내져, 한층한층 자라다가 중학교 들어와서 그곳에서 내가 시골 살 때 몰랐었던 패션, 핸드폰, 시계, 한글을 알게 됐다.

그리고 공부라는 것을 알게 되어 영어라는 과목과 수학이라는 과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이 가난하면 아마 이런 것들 외에도 몰랐겠지만 운이 좋아서 그런지 밥도 챙겨주고 병원도 데려가주고, 준비물도 챙겨주고 가르쳐주고 학교 다니게 해주고 학원도 다니게 해 주었다. 비록 엄마한테서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많은 것들을 알게 해준 고아원.

그래서 그곳에서 살다가 4년 만에 엄마를 만나게 해줬고 나를 멋진 사람과 착한 사람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어도 나는 많은 걸 가르침 받고 사랑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랑이라면 고아원에서 많이 받고 보살핌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나에게 간절한 소망이다. 앞으로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보겠다.

●찬혁이의 이야기(男, A 공고): '친 가족처럼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몹시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살면서 즐거웠던 장소는 “돈보스코집”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나는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나 둘만 남게 되었다. 능력이 없던 나머지 날 고아원에 맡기셨다.

물론 아버지가 한 일은 아니고 고모가 한 일이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고모는 내 장래를 걱정하여 4학년 때 금산 향립원(?)에서 대전 돈보스코집'으로 보내셨다. 고아원보다 시설 조건이 더 좋았다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은 일반 가정집처럼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 좋은 조건이었다.

그 곳은 진짜 가족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고아원의 생활에서 친 가족처럼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몹시 혼란스러웠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나에게 어릴 적 교육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전에서의 학교생활은 많이 힘들었다. 다른 또래 친구들과 수업을 받기가 어려웠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 버려서 공부를 포기할 무렵에 가족 같은 집이 나에게 많은 힘을 주었고 나의 가족이 되어주어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려 한다.

Bachelard는 참된 의미로 잘 사는 것은 집의 혜택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집에 대한 이미지는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의 현실적 보호 역할에서 온다(곽광수 옮김, 2003, 132). 동수와 찬혁이는 '어머니'로 대변되는 집의 혜택을 잃어버린 채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는 학생들이다. 동수는 어머니와 헤어진 이후, 고아원에서 살게 된 과정과 그곳에서의 생활을 글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찬혁이는 고아원에서 위탁 가정과 같은 '돈보스코집'으로 옮겨와 생활하게 된 배경과 그곳에서의 생활을 적고 있다.

동수가 고아원에서 생활하며 4년 만에 엄마와 재회한 후,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어도 나는 많은 걸 가르침 받고 사랑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든다.” 찬혁이의 경우는, 고아원으로부터 좀 더 가정집과 같은 위탁 돌봄 센터인 '돈보스코집'으로 옮겨와 살게 되면서, 그곳에 대한 첫 인상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그곳은 진짜 가족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고아원의 생활에서 친 가족처럼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몹시 혼란스러웠다.”

참된 안락이란 공간을 사(體驗)는 것, 공간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곽광수 옮김, 2003, 78). 동수는 어머니와의 재회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찬혁이는 새로운 장소에서 전과 같지 않은 형식으로 돌봄을 받는 것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두 학생 모두 지금 '또 다른 형식의 집이 제공하는 현실적인 돌봄'을 통해 그 공간에 적응하고 안착하는 중이다. 동수는 그와 관련한 소회를 '운이 좋아서 그런지 밥도 챙겨주고 병원도 데려가주고, 준비물도 챙겨주고 가

르쳐주고 학교 다니게 해주고 학원도 다니게 해주었다. 비록 엄마한데서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많은 것들을 알게 해준 고아원'과 같은 표현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는 참된 안락의 전제 조건인 '공간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르침의 과정에서 이런 글들을 받아보는 것은 확신했던 '말 걸기'의 대상이 늘어나는 과정이 될 것이다.

(2) '상상화된 장소(Imaginated place)'의 생산을 통한 치유의 시도들

장소에 대한 환상은 누군가의 공포, 두려움, 행동 이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Wolch and Philo (2000)는 '미친 상상력의 지리'에서 장소에 대한 개인의 인지가 정신병과 스트레스에 의해 어떻게 변형되는지 탐색했다. 어떤 공간에 부정적인 관계가 스며들면, 일상생활 공간에서 경로를 정할 때나 공간에 관한 다양한 실천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Andrews, 2004, 312). 즉 사람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안겨준 장소에 대한 일종의 혐상의 결과로 그와 비슷한 장소도 회피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Segrott and Doel, 2004). 이런 경우, 심리치료자들이 상상화된 장소를 매개로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은 이런 식이다. 환자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장소로 돌려놓고, '그들이 그 시간에 행했던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일을 행했다면'과 같이 상상하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순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채택한다(Andrews, 2004, 313). 하지만 심리 치료가의 방에서만 상상화된 장소를 매개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픈 기억을 극복하고자, '한 때 행복했던 장소'를 반추하는 인영의 글 속에서처럼, 일상의 공간에서 누구나 그런 상상은 할 수 있고 그리고 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장소가 갖고 있는 힘 때문이다. 그리고 '부정하고 회피하고 돌아가고 싶었던 장소를 또 다른 시선으로 돌아보게 된 승민이의 이야기'를 통해, 장소에 기반 한 정체성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인영이의 이야기(男, A 공고): '진짜 그때는 ...'. 인영이, 텅 빈 운동장 위에는 행복했던 장소 기억을 떠올리며 중요한 사람들의 부재를 극복하려 한다.

내게 가장 영향을 준 장소는 병원이다. 이유는 병원에서 참 슬픈 일을 겪었다. 나에게 있어서 태어나서 가장 슬픈 일이다. 가장 슬픈 일은 부모님이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돌아가신 일이다. 나는 그 일로 인해 많은 슬픈 일을 겪었다. 이처럼 많은 슬픈 일들이 있지만 즐거운 일, 행복한 일들도 있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누나랑 같이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미있고 신나게 놀았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다. ... (중략) ... 초등학교 때는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했다. '진짜 그때'는 부모님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응원도 해 주시고 점심 때 맛있는 음식도 사 오셨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승민이의 이야기(男, A 공고): '골목길에서 다짐한다. 그 때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나를 키운 장소는 이사 가기 전 살던 동네(관저동 구봉마을 일대)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5살 때부터 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친구들이 있고 그곳에 있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감도 없고 패기도 없어서 매일 내성적으로 생활했다. 그러던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모두 좋은 친구들은 아니었다. 내가 나쁜 친구들인 걸 알고 인연을 끊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왕따 즉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반항할 생각조차 없이 내 잘못이라 생각하며 지내왔다. 그러던 중 중학교에 입학한 후 나는 학교 폭력을 당했다. 매일 같이 동네에서 맞고 돈도 빼앗기면서 아무도 몰래 울면서 혼자 울분을 가라앉혔다. 그러던 중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나의 상태를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셨다. 그로 인해 나는 새

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내가 매일 밟았던 곳, 돈을 뺏겼던 곳을 둘러 다니면서 생각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당한다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던 동네가 나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가끔씩 관저동에 가면 그곳을 둘러보고 다닌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영이는 글을 쓰면서 사고로 부모님을 잃기 이전의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받았던 추억을 되살리며 기운을 되찾으려 한다. 치유란 대단한 순간이 아니라, 인영이의 고백과 같이, '진짜 그때는 ...'이라는 시적인 표현과 함께 지금의 텅 빈 운동장 위에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의 운동장의 이미지를 상상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내 것이 되는 것이다. 한편, 승민이의 글은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골목)에 서있지만, 학교 폭력을 당하기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며, 같은 골목이라도 그곳이 다른 장소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상담 지리 분야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상화된 장소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매개로 개입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지속되는 삶에서 매듭이 지워지는 순간들이다.

(3) 책상 밑, 벽장 속, 화장실, 뒷산, 침대 등 돌봄(care)의 장소에서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일치'를 위한 노력들

'장소'의 멘탈 이미지, 즉 심상은 과거를 회상하고 들춰내는 데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의학지리 분야에서 멘탈 이미지가 심리를 감지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실천의 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Andrews, 2004, 313). 특히 상담의 공간성을 연구한 Bondi와 Fewell(2003)은 공간이 현실과 상상 둘 다를 통해 어떻게 창출되는지, 그리고 상담가가 내면자의 내면세계를 어떻게 탐색하는지를 연구하였다. Bondi는 상담을 돌봄의 지리학이라 여기고 돌봄이란 누군가에게 거기(there)라는 편

안한 장소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라 보았다(Bondi, 2003). 상담 치료 과정에서 이완과 명상과 같은 기법에 이미지와 비주얼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치유 경관'을 사용하기도 한다(Willams, 1998; 2002). 마음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현실 속의 장소와 그것에 대한 이미지는 과거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들춰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Andrews, 2004, 313). 그런데 그러한 이미지가 항상 유쾌한 것은 아니기에 여기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용은 '사회적 자아, 즉 페르소나'와 '감추고 싶은 이면의 나, 말하자면 나의 그림자' 가불일치할 경우 갈등이 생긴다고 했다. 철민이, 용준이, 희찬이의 글에는 그런 불일치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자신들만의 은닉처가 그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는 돌봄의 장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철민이의 이야기(男, A 공고): '책상 밑의 나, 가끔은 소통을 닫기 위해, 때로는 마음의 진정을 찾기 위해'

나를 지금의 나로 키운 장소는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뽑자면 책상 밑이다. 어렸을 때는 이 장소에 숨어서 숨바꼭질을 했고 ... (중략) ... 그곳은 비밀의 장소가 되어서 비상금을 숨기는 곳이기도 했으며 시험을 잘 못 봤을 때 성적표를 집어넣는 장소였다. 가끔씩 책상에서 공부가 안될 때는 부모님이 보실까 하면서 장소를 생각하다 책상 밑에 웅크려 앉아서 자기도 했다. ... (중략) ... 가끔 어머니와 다투고 나서 소통을 닫기 위해 들어간 곳도 바로 책상 밑이다. 그 후로부터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때는 책상 밑에서 웅크려 앉아 있으면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알아서 책상 밑에 있기도 했다. 그렇게 돼서 책상 밑은 나에게서는 추억과 마음에 진정을 가져다주는 의미 있는 곳이 되었고, 소중한 장소가 되었다.

●용준이의 이야기(男, B 고교): ‘벽장 속의 나, 13센티미터 두께의 문을 경계로 생기는 피난처’

집, 그리고 방, 나의 방, 안식처, 그리고 13센티미터 두께의 문을 경계로 생기는 피난처,
2년간 방황했다. 술과 담배에 찌들어, 앞, 바로 코앞까지도 보지 못했다. 나는 한 치 앞의 위험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 (중략) ... 슬프거나 우울할 때면 어린 애 마냥 벽장에 들어가 꾸꾸려 앉는다. 벽장은 생각보다 넓고, 생각보다 더럽다. 하지만 방 안의 또 다른 방이 생긴 것 같아 나는 종종 잠이 안 올 때 그곳에 들어가곤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벽장 천장을 본다. 꼭대기 층인 17층을 넘어, 지붕 너머에 있는 밤하늘을 상상하면 우주 속에 하나뿐인 기분이 든다. 변했던 것도 변할 것도 없다. 어제처럼 밤하늘은 적적하다. 나는, 갇힌 벽장 안의 나는 결국 되살아났다. 이제 펜을 잡는다.

●희찬이의 이야기(男, B 고교): ‘삼푸 거품 속의 나, 샤워기 트는 소리를 들으며 밖의 소리를 잇는다.’

누구나 각자의 주거 공간, 집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같이 지내며 사는 가족이 있을 것이다. 서로 힘들 때 기대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저 말없이 안아주는...그런 가족이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서로 험뜯고, 가출을 하고 안아주기는커녕 비난하고 저주하는 가족도 있을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전자의 가족을 너무나 바랬는지 모른다. 조금이라도 툃툃거리는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상했다. ... (중략) ... 집안 가구, 물건들을 부수는 것까지 달해 왔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 마음이 너무나 피폐해졌을 즈음 혼자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곤 했다. 샤워기 소리에 화장실 밖의 상황은 들리지 않고, 거울을 보며 내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고, 상처나 분노, 슬픔 같은 게 거품이 되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상처와 아픔은 씻겨져 나가고, 수증기가 환풍기로, 창밖으로 나가 올라가는 것처럼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의지가 다시 올라섰다. 앞으로 더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싶다.

용은 살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나 나의 거친 면(그림자)을 자신의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릴 때, 그 그림자는 건강하게 페르소나에 융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철민이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공고로 전학을 온 학생이다. 철민이에게 ‘책상 밑’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숨바꼭질을 하던 장소에서, ‘비밀의 장소’와 ‘마음의 진정을 찾기 위한 장소’로 순차적으로 바뀌고 있다. ‘책상 밑’은 철민이의 성장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 한편, 방황하고 거친 자신의 모습이 싫었던 용준이와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희찬이는 모두 소통의 부재로 힘들어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세 학생의 글 속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장소로, 책상 밑, 벽장 속, 화장실과 같은 그들만의 은닉처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밤하늘’과 ‘우주’, 그리고 ‘삼푸 거품’과 ‘수증기’와 같은 화해의 이미지에 기대어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불행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서사화했을 때, 그 불행은 다룰 수 있는 존재가 된다 (Jones, 2006, 53).

그 외에 여러 학생들의 글 속에는 침대, 뒷산, 앞마당, 집 앞의 골목 등의 장소가 세상과의 틈이나 단절을 치유하는 마음의 경관으로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처소로 등장하고 있었다.

(4) 이주에 의한 낯선 장소들로부터의 ‘자기 발견’의 시간들

개인이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는 사람들의 경험과 행동에 대한 기억, 생각, 느낌, 태도, 가치, 선호, 의미, 개념 등이 복잡하게 재현되는 하나의 무대가 될 수 있다. 그 속에서 개인들은 날마다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장소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가 불박인 로케일로서, 하나의 사물, 사람, 실천과 같이 ‘일상의 사회적 세계와 통합된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자아 정체성은 장소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과 연결되어 획득되고 동시에 자아 정체성은 장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되며 재생된다.

비장소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는, 가령 고속도로의 갓길이나 터미널처럼, 그런 삭막하고 물개성적이고 의미 없는 공간을 말한다(Cresswell, 2004, 45). Marc Augé와 같은 인류학자는 '의미와 의미 사이에 있는 공간'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비장소성을 지닌 장소 앞에 있을 때, 오히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낯선 장소에서 있을 경우, 내가 누구인지를 성찰하고 문득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 성지의 이야기(女, B고교): '그때의 호주는 내 나라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영어도 쑥쑥 잘 들리고 친구들과 대화도 자연스럽게 되면서 내가 호주사람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다. 고작 몇 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음식을 먹고 이름도 특이하고 생김새도 다른 것에 조금은 창피하다는 생각을 했다. 가끔 엄마가 삼각 김밥을 싸주거나 한국음식을 싸줄 때면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고 오기도 했다. 그 때의 호주는 내 나라였다. 마치 내가 호주인 인 듯 행세했고 영어를 못하는 엄마, 아빠를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친구들 앞에서 한 나라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호주 아이들은 자기들의 진정한 혈통은 다 달랐다. 네덜란드 피가 섞인 아이들도 있고, 프랑스, 멕시코, 중국 등 다양한 나라의 피가 섞인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혈통의 나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나도 나를 한국에 대해 열심히 조사하고 연습도 많이 했지만 정말 문화도 사회도 가치관도 다른 우리나라를 설명하기가 막막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은 정말 달랐다. 오히려 질문이 더 많았고, 우리나라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한복이 예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는 그 때 깨달았던 것 같다. 나는 진정한 한국인이고, 그것은 속일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때 나는 내 진로를 생각하게 되었다.

● 영준이의 이야기(男, B고교):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다.'

프레즈노, 캘리포니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를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개방되었지만 혼란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적극적인 성격이 형성되었지만 소극적인 면도 생겼다. 소수 인종이란 웬지 모를 열등감 때문인 것 같다. 인종차별도 당해왔고 각종 파티들에도 참석했다.

역시 모든 것엔 양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 때까지만 해도 남의 눈치를 보는 타입은 아니었으나, 한국에 돌아와서 힘든 적응기를 보냈다. 한국 정서를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내 성격도 소심해져갔다. 그래서 이전 매사에 적극적이지 못한다.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다고 하지만 난 그들이 참 냉정하고 이기적인 것 같다. ... (중략) ... 이제 큰 목소리로 말하기조차 두렵다. 아마 그래서 내가 음악에 더욱 빠져들게 되는 것 같다. 그 어느 무엇보다도 진솔하고 순수하니까.

● 여준이의 이야기(男, B고교): '비행기에 타서 이륙하는 순간, 모든 고통 슬픔을 모두 호주에 돌려주고 싶었다.'

저는 14살 때 호주로 유학을 가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14살에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과 벽참, 인종 차별 등 억울한 고통을 받으며 처음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IEC를 수석졸업하고 수학 과목에서 수석을 차지하였으며 제가 원하는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외국 문화, 서양 귀족 문화를 접할 수 있었으며 노블리스오블리주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졌으며 저는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 목표를 이루자마자 찾아온 것은 삶의 권태였습니다. ... (중략) ... 제가 유학하기로 한 3년이 지나 저는 귀국하였습니다.

비행기에 타서 이륙하는 순간 저는 3년 동안 흘리지 않던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귀국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 제가 겪은 모든 고통 슬픔을 모두 호주에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 저는 한국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14년간 한국에 살았었지만 돌아온 나의 고국은 너무나 차갑고 암담했습니다. 처음에 국어 학원을 다녔는데, 제 목적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 국어학원과는 정 반대로 학생들에게 수능을 가르쳤습니다. 그 뒤로 나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는 혼란한 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저는 지금도 적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지의 경우처럼, 낯선 곳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비전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낯선 곳에서 겪은 갈등으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영준이와 여준이는 낯선 외국에서도 그리고 돌아와 익숙했던 한국에서도 이방인과 같은 느낌으로 지금도 자신을 둘러싼 문화에 '적응 중'이다. 두 학생은 Marc Augé가 이야기 했던 '의미와 의미 사이의 공간'에서 있는 듯하고, 그 속에서 혼성성의 자기 정체성을 직면하고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장소는 정체성을 보증하는 선천적 라벨이기도 하지만, 정체성의 창조적 생산을 위한 원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5) '경계'의 장소들을 통한 관계 회복의 추구

치유하는 이야기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마쳤을 때 '다른 자기'가 되어 있도록 하는, 처음과 다른 장소에 나를 데려가는 이야기이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새로운 내가 되어 있는 내가 나타나는 그런 결말과 또 새로운 시작이 이어지는 치유적 이야기는 계속 갖고 가는 삶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새로운 매듭을 짓는 일이며 경계 넘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날 키운 장소는 태권도장이다. ... (중략) ... 지금도 학교를 빠지고 있지만 그 외에 나쁜 짓은 모두 고쳤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 고쳐서 꼭 달라지고 싶다. 정말 엄마와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라도 꼭 새롭게 달라지고 꼭 효도하고 싶다.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건 엄마 아빠이다.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다. 진짜 꼭 달라질 것이다. (민형이 이야기, 男, A 공고)

지금의 나를 만든 곳은 바로 편의점이다. 어머니께서 세븐 일레븐을 내가 중2 겨울방학 때 시작하셨다. 처음엔 그냥 계산만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밤 12시가 되면 물건이 들어온다. ... (중략) ...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물건이 늦게 왔을 때랑 술 먹은 사람들이 엄마한테 욕하고 그랬을 때, 설날 때 아침부터 오후까지 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다. ... (중략) ... 지금은 고 2라 도와드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실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못난 아들 키우시느라 힘드실 텐데 편의점을 두 개 운영하시느라 더 힘드실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지금은 그런 걸 못해서 많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가장 나다운 날 만든 곳은 바로 편의점이다. (준형이 이야기, 男, B 고교)

나는 동구에서 태어났다. 유치원 때부터 싸움만 하면서 지냈다. ... (중략) ... 초5 때 서구로 이사 오게 되었다. 여기는 또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씹박질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서구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열심히 하는 그런 '나'가 되었다. 조금씩 정신 차린 것 같다. 이제는 나에겐 공부야 최우선이고 어머니가 "사람 되 줘서 정말 고맙다." 이 말을 하셨을 때 정말 죄송스러웠다. 여하튼 서구로 이사 온 것이 나에게 인생 터닝 포인트이다. (제훈이 이야기, 男, B 고교)

세 학생의 글 속에는 관계의 전환점이 된 장소가 등장한다. 예를 들면, 세 학생에게 태권도장과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온 이후의 경험들은 모두 부모님과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 각

각의 장소는 부모님과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해보고 이전의 나와는 다른 새로운 나를 향한 경계 넘기의 장소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치유의 과정이 자신이 지향하는 존재를 향해 '경계를 넘어가는 과정'으로만 한정지을 수는 없다. 경계가 약한 이들에게는 자기가 어느 곳에 속해있는지 '경계를 뚜렷하게 하는 과정' 또한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소연이의 이야기(女, B 고교): '아빠의 약국이 있던 자리를 한 번씩 꼭 쳐다보고 간다.'

우리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약국을 하셨다. 우리 집은 한빛아파트고 약국은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공동에 있었다. 두세 살 때는 생각이 안나지만 사진을 보면 아빠 약국에서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았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해도 아빠 약국에 자주 놀러가서 약국 안쪽에서 약 제조하는 것도 구경하고 약 이름도 외우고 아빠랑 얘기도 많이 하고, 약국 앞에 있는 할인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었다. 아빠는 항상 월드콘을 먹고 나는 비야코를 먹었다. 어릴 땐 학교에서 보낸 시간만큼 아빠랑 약국에서 보냈던 시간이 많았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가족들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아빠를 보러 공동에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놀러 공동을 찾았다. 혹시나 아빠가 보고 혼낼까봐 아빠 약국을 지나갈 때는 공중전화 뒤로 늘 숨어서 지나갔다. 그때부터 안하던 거짓말도 하게 되고 엄마 아빠 속도 많이 썩이고 많이 혼났다. 그러다가 아빠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도 가고 삼촌이 아빠 대신 약국을 봐주곤 했다.

처음엔 아빠가 아픈 걸 신경도 안 썼고 아빠는 나중에 서울로 입원을 하러 갔고 나는 더 놀러 다녔다. 집에 엄마 아빠가 안계시고 할머니와 삼촌이 봐주려 와주시고 해서 난 철없이 자유로움에 즐거웠다. 나중에 아빠가 위암말기라는 걸 들었을 때도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고 평소같이 지냈다. 엄마는 항상 아빠가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고, 우리는 입원해 있는 아빠를 별로 신경 쓰지 않

게 됐고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좋아했다. 그 뒤에 아빠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셨고 의식도 없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머리도 다 빠진 채로 반도 안 되게 말라서 누워있던 게 내가 본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약국도 팔리고 지금 그 자리에는 속옷가게가 있다. 지금도 공동에 자주 가서 지나갈 때마다 그 때 생각이 많이 나고 한 번씩 꼭 쳐다보고 간다. 지금은 아빠도 약국도 볼 수 없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장소이고 가장 행복했던 장소이다.

●시영이의 이야기(女, B 고교): '집, 그것은 내게 있어 여러 가지 이름'

집, 그것은 내게 있어 여러 가지 이름
죽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감옥
살아가며 머무를 소중한 터전
무겁게 짊어진 강철의 족쇄
자신을 이루는 근간의 뿌리
갈기갈기 찢어진 날개의 시체 산
단단하게 지어진 벽돌집 아랫 단
그것은 내 눈물이며 온기이고,
그곳은 내게 속박이자 터전이다.
나는 이곳에서 따스함을 배웠으나
자유에 대한 갈망조차 간절했다.

나는 그 무대에서 태어난 불량품
우습게 휘돌리는 꼭두각시 피어로
무대를 뛰쳐나가면 자유로 갈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무대의 인형
연극이 끝나기 전에는 용납되지 않는다.
오늘도 나는 춤추며 고여 있다.
삶과 의무라는 줄에 희롱당하며
처음에는 김시영(가명)이었으나
마무리에는 배덕이리니
패륜이라는 이름을 받을지라도
나는 이곳에 시를 쓰노라

치유의 과정에서 본다는 것은 중요하다. 본다는 것은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것, 비로소 이해한다는 것,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조원규, 2011). 장소는 바라봄의 매체이자 과정으로 작동하며 자신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 알게 해준다.

소연이의 글 속에서 아버지의 약국은 어린 시절에는 ‘아빠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던 행복한 장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친구들과 어울리며 부모님과 갈등이 심화되던 시간에는 ‘돌아가고, 회피하고 싶은 장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 속옷가게가 대신 들어선 곳을 보는 지금의 시점에는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절의 행복했던 감정과 아버지와 헤어지던 시기의 혼란스런 감정들을 동시에 접촉하게 만드는 장소’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도 소연이는 잦은 지각과, 학업보다는 연극 동아리 활동에 열중하는 모습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다. 아버지를 잃고 힘들어하는 소연이와 소연이의 어머니는 여전히 갈등상태에 있지만, 소연이는 담임 상담 시간에 점점 마음을 열고 자신의 행동을 고쳐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시영이의 글에서 집은 ‘죽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감옥’이자 ‘살아가며 머무를 소중한 터전’과 같이 복합적인 은유로 등장하고 있다. 시영이는 부모님이 모두 의사이고 언니도 서울 소재의 의대에 다니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그 무대에서 태어난 불량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시영이는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글을 쓰며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진로 시간이 끝나면, 시영이와는 가끔씩 이야기를 나눈다. 시영이는 글을 쓸 때 ‘안에 있는 느낌, 생각을 토해 내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겉에 질리고 실패할까 두려워 가보지도 않고 포기한다거나, 자기를 믿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가끔은 싫다.”는 이야기도 했다. 시영이는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자신의 모습 사이에 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소연이와 시영이의 글 속에서 나타나는 장소를 통해 볼 때, 두 학생 모두 가족 공동체라는 경계(울타리) 안에서 자신이 어느 지점에서 있는지 응시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소연이나 시영이처럼, 경계가 약한 이

들에게는 ‘경계를 세우는 일’이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다.

4. 토론 및 맺음말

치유의 글쓰기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면의 깊은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로서, 이 점에서 기존의 제도권 교육에서 흔히 이루어졌던 논술 형식의 글쓰기와 그 본질을 달리한다. 치유의 글쓰기는 글쓰기의 치유적 의미와 효과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술적 영역 및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가 점차 시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치유의 글쓰기를 위한 실제 진행 형식, 글쓰기 과정에서의 치유의 작동 기제 등 보다 구체적인 논제들이 탐구되고 있다.

특히, 치유의 글쓰기에 관한 대부분 연구들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강한 영향으로 ‘기억되고 있는’ 내면의 깊은 감정에는 ‘언제나 그/그녀의 장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소와 기억/존재의 호혜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이나 장소 철학자들이 주장해 온 바 있다.

본 연구는 장소와 기억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장소’가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를 추동하고 치유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소를 촉매로 한 치유의 글쓰기’를 실천하기 위해 장소의 촉매적 기능을 담아낼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글쓰기 주제가 필요하다 보고 있다. 그래서 도출한 것이 ‘나를 키운 장소’라는 주제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키운’이라는 형용사야말로 ‘존재(나)와 장소 사이의 관계’를 강하게 연관시켜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나를 키운 장소’를 주제로 글쓰기를 수행한 결과, 평소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주어진 시간에 글을 완성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한 학생들의 글 속에는 장소와 존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양태들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314개의 샘플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글을 ‘있는 그

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 주안점을 주되, 그것의 치유적 의미를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묶어 해석해보았다. 1) 상실감의 기저에 자리 잡은 원초적 장소로서의 집, 2) 상상화된 장소의 생산을 통한 치유의 과정들, 3) '책상 밑, 벽장 속' 등 돌봄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의 자아와 외부 자아의 일치를 위한 노력들, 4) 낯선 장소를 대면하면서 갖는 자기 발견의 시간들, 5) 경계의 장소들을 넘나들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들 등등의 양태가 그것이다.

글쓰기에 나타난 '장소를 축매로 한 다양한 치유적 양태들'을 해석해본 결과, 장소가 몇 가지 측면에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치유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 중요하게 떠오르는 장소'를 소개하는 글의 도입 단계에서 장소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면의 깊은 감정을 '접촉'하게 만들었다. 둘째, 장소의 의미를 되새기는 글의 중간단계에서 장소는 자신을 둘러싼 관계들을 일정한 거리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셋째, 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장소는 글을 쓰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일종의 '경계 넘기'에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였다. 그것은 대체로 기억의 장소가 지금의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성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치유의 글쓰기 전반에서 장소가 갖는 의미는 '접촉하기' → '조망하기' → '경계 넘기'와 같은 치유의 단계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축매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장소'는 치유의 글쓰기에 강력한 축매제가 될 수 있으며, '나를 키운 장소' 글쓰기는 치유의 글쓰기에 한 유형이 될 수 있다. 장소를 축매로 한 글쓰기는 외부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내부에 있는 지리의 본래성을 발굴하고 장소와 경관에 대한 유대감을 자극하여 사적 지리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Slater가 말한 '정신 분석학 시대에 지리교육의 역할'이기도 할 것이다(Slater, 1996, 1-2). 그런 의미에서 '장소'를 축매로 한 치유의 글쓰기를 구상하고 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과정은 정신분석학 시대에 지리교육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소를 축매로 한 치유의 글쓰기는 지리교육의 목

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지리교육학의 학문 구조 안에는 좀처럼 포함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지리교육학의 외부에 존재하는 남의 영역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장소(감) 그 자체는 지리교육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이자 개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소를 축매로 한 치유의 글쓰기는 지리교육학의 외연을 확장하는 새로운 영역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지리교육이 교육과정 안에 머물러있다면 장소를 축매로 한 치유의 글쓰기는 학생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장소를 상기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지리교육이 대체로 학창 시절에 한정된다면 치유의 글쓰기는 평생교육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기존의 지리교육의 교과와 틀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치유의 글쓰기는 교과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는 등 교과와 틀을 벗어나 지리교육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지리교육이 제도권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시험을 위한 외재적인 그 무엇이라면 장소를 축매로 한 치유의 글쓰기는 존재와 삶 속에서 기능하는 장소 그 자체의 의미를 학생 스스로 음미해가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소를 축매로 한 글쓰기를 주제로 하는 연구들은 일정한 한계와 여러 가지 과제도 안고 있다. 무엇보다, 글쓰기 그 자체는 개인적인 정서를 분출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연구들은 사생활 보호의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글쓰기 자료들을 가명으로 처리한다 하여도 그 내용이 노출된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이다. 치유의 글쓰기가 갖는 치유의 효과를 진단하고 해석하는 보다 타당한 준거들도 요구된다. 치유의 글쓰기가 단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시퀀스와 스코프를 염두에 두고 후속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차후 연구 주제들에 대한 탐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치유의 글쓰기가 갖는 치유적 기능을 보다 진전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도록 '치유의 글쓰기 → 소통의 글쓰기 → 나눔의 글쓰기'와 같은 계열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장소를 축매로 한 이러한 치유의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장소의 의미와 가치를 음미하고

생애 속에서 지리의 세계와 함께하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강은주, 2005, “글쓰기 치료에 관한 이론적 고찰”, *총신대 논총*, 25, 총신대학교.

강은주·이봉희 율김, 2006, *저널치료*, 학지사, 서울(Adams, K., 1998, *The Way of the Journal: A Journal Therapy Workbook for Healing*, Sidran Institute Press).

곽광수 율김, 2003, *공간의 시학*, 동문선, 서울(Bachelard, Gaston, 1961, *LA POÉTIQUE DE L'ESPACE*, Le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aris).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율김, 2008,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서울(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김준희, 2010, “글쓰기의 치유 과정에 관한 연구”, *한말연구*, 26, 한말연구학회, 63-86.

염은열, 2005, “문학치료의 방법으로서의 독후감 쓰기에 대한 연구”, *독서연구* 14, 315-333.

이재승, 2008, “작문 연구의 동향과 과제-작문에 대한 세 가지 가치론적 접근법”, *청람어문교육* 38, 청람어문교육학회.

이재승, 2010, “표현주의 쓰기 이론의 비판적 검토”,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회.

이지현 율김, 2011,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교육과학사, 서울(Fenstermacher, G. D., Soltis, J. F. and Sanger, M. N., 2009, *Approaches to Teaching*, Teachers College Press, New York).

전종한, 2013, “도시 본정통의 장소기억-충무로·명동 일대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8(3), 433-452.

정기철, 2010,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표현의 글쓰기”, *한국언어문학*, 74, 한국언어문학회.

정희모·이재승, 2005, *글쓰기 전략*, 들녘.

한성우, 2012, *적극적 상상과 치유의 글쓰기*, 오늘의 문화사.

Andrews, G. J., 2004, (Re)thinking the dynamics between healthcare and place: therapeutic geographies in treatment and care practices, *Area*, 36(3), 307-318.

Bondi, L. and Fewell, J., 2003, ‘Unlocking the cage door’: the spatiality of counseling,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4, 527-547.

Bondi, L., 2003, A situated practice for (re)situating selves: trainee counsellors and the promise of counseling, *Environment and Planning, A* 2003, 35, 853-870.

Carolan, M., Andrews, G. J. and Hodnett, E., 2006, “Writing place: a comparison of nursing research and health geography”, *Nursing Inquiry*, 13(3), 203-219.

Casey, E. S., 1987,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Cresswell, T., 2004, *Place-a short introduction*, Blackwell publishing.

Eyles, J., 1995, *Sense of Place*, Warrington, England: Silverbrook Press.

Foa, E. B. and Kozak, M., 1986, Emotional Processing of fear: Exposure to corrective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99, 20-35.

Gesler, W., 1993, Therapeutic landscapes: Theory and a case study of Epidaurus, Gree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1, 171-189.

Jones, A. H., 2006, Essay Writing and Healing, *Medicine and Creativity*, 368, 53-54.

Kearns, R., 1993, Place and health: Towards a reformed medical geography, *Professional Geographer*, 45(2), 139-147.

Lepore, S. J. and Smyth, J. M.(eds.), 2002, *The Writing car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ennebaker, J. W., 1997, *Opening up: The healing power of expressing emotion*, New York: Guilford.

Pennebaker, J. W., 2004, Commentaries: Theories, Therapies, and Taxpayers: On the Complexities of the Expressive Writing Paradigm,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1(2), 138-142.

Pennebaker, J. W. and Graybeal, A., 2001, Patterns of natural language use: Disclosure, personality, and social integra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 90-93.

Segrott, J., and Doel, M., 2004, *Disturbing Geography*:

-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s a spatial practice,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5(4), 597-614.
- Slater, F. A., 1996, *Learning Through Geography*,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 Smyth, J. M., Stone, A., Hurewitz, A. and Kaeli, A., 1999, Writing about stressful events produces symptom reduction in asthmatics and rheumatoid arthritis: A randomized trial,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1, 1304-1309.
- Williams, A., 1998, Therapeutic landscape in holistic medicin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6(9), 1193-1203.
- Williams, A., 2002, Changing Geographies of Care: employing the concept of therapeutic landscape as a framework on examining home space, *Social Science & Medicine*, 55, 141-154.
- Wolch, J. and Philo, C., 2000, From distributions of deviance to definitions of difference: past and future mental health geographies, *Health and Place*, 6, 137-157.
- Wetherell, M., 1998, Positioning and interpretative repertoires: conversation analysis and post-structuralism in dialogue, *Discourse and Society*, 9(3), 387-402.
- 조원규, 치유서사창작론, <http://www.kocw.net/home/search/kemView.do?kemId=304359#Redirect>
- 텍사스 주립대학교, www.utexas.edu/feature/2005/writing/
- 교신: 한희경,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56, 대덕고등학교(이메일: hanlan21@hanmail.net, 전화: 042-860-0327)
- Correspondence: Hee-Kyong Han, Daedeok High School, 556 Daedeok-daero, Yuseong-gu, Daejeon Metropolitan City 305-340, Korea (e-mail: hanlan21@hanmail.net, phone: +82-42-860-0327)

최초투고일 2013. 6. 20

수정일 2013. 8. 19

최종접수일 2013. 8. 27